

순천시 생태경제 효과, 차세대 ESS 에너지 산업까지 확대

(주)인투알과 투자협약... 175억 투자·지역인재 100명 채용 규모

작년 대비 투자유치 30배 상승...순천만의 생태경제 전략 주도

가장 84일만에 관람객 500만명을 달성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과 함께 '생태경제' 전략이 이제는 순천 경제 활성화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27일 ESS 전문기업인 (주)인투알과 투자액 175억 원, 고용인원 100명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2002년에 설립된 (주)인투알은 최첨단 네트워크·통신기기 장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캐비닛, 옥외용 합체랙 등을 제조하는 알토란 같은 기업으로 2016년부터는 ESS(에너지 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분야로 영역을 확대한 후에 급성장하고 있다.

(주)인투알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순천 울촌1산단 공장에 ESS 대형 특수 컨테이너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2024년까지 생산량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기존의 협력업체까지 울촌1산단에 동반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순천시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젊은 인재들이 머무는 만큼, 이제는 식구가 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2023년 상반기에만 8,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어 5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달성했다. 특히 대기업인 한화과 포스코 등을 잇따라 유치하며 순천의 차별화된 생태경제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15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노관규 표 생태경제 전략이 주요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 대비 투자유치액이 30배 상승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순천=조순익 기자

합평, 관광 취약계층 여행기회 지원

저소득층 등 157명...내달 14일까지 모집

합평군이 관광 취약계층 157명에게 전남지역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합평군은 '전남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5만원, 장애인은 동반자 1인을 포함해 30만원 상당의 당일 여행 상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합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저소득층 137명, 장애인 20명 등 총 157명이며, 7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평군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관광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주민이 이번 행복여행을 통해 아름다운남도 관광지를 여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 1차 참가자 30여 명은 지난 26일 목포시 일원에서 해상케이블카, 유람선,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을 여행하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합평=김용희 기자

신안, 영농폐기물 보관 새로운 기준 제시

경관블럭·대나무 이용한 '농부의 품격' 공동집하장 조성



신안군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경관블럭과 친환경 대나무로 구성되어 농촌환경 개선과 자원의 순환이 용이한 친환경 폐기물 보관 시설을 조성했다. 또한, 유지관리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경관블럭과 대나무를 이용해 길이 12미터, 폭 5미터의 '농부의 품격' 공동집하장을 자운면에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집하장은 벽체 재질로 콘크리트 옹벽 또는 철을 사용해 재활용이 어렵고 부식에 의한 도색 등 유지

관리 비용이 적잖게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통나무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오던 중, 내구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는 미비점을 개선해 농부의 품격을 조성했다.

'농부의 품격'은 국민들을 위한 먹거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농민에 대한 감사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를 강조하기 위해 네이밍했다.

신안군은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로 지난 2018년과 2022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폐농약류 무상처리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보호와 주민 공감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영암, 청년 카페 '특산물 카페 디저트' 교육

다음달 28일까지 진행

영암군이 청년 창업자들의 배움 열기 속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디저트를 만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13회에 걸쳐 이어지는 이번 '특산물 카페 디저트 교육'은 청년 카페 창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공고로 선발된 10차 청년 사장들은 카페 창업 컨설팅 전문업체인 '메종세컨드'의 강사와 이달 21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무화과, 대방감, 고구마 등 1개 품

목을 선택해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할 대표 메뉴를 개발하는 중이다. 영암군은 교육이 끝나면 청년 사장들의 가게를 담은 '카페 투어 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청년 사장 이금천 씨는 "디저트 메뉴 교육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 노하우와 기존 판매 제품 개선방안도 함께 상담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라며 만족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마중물 삼아 꾸준히 제품 개발을 뒷받침해 영암이 미식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장흥 '스마트강소농' 육성 교육 진행

농가 맞춤형 스마트재배기술·경영역량 함양 교육 추진

장흥군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스마트강소농'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강소농은 농가 특성별 맞춤형 디지털 장비·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스마트 강소농 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 장흥군이 시범 시군으로 선정되어, 원예공통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하게 된다.

스마트 강소농 육성 교육과정은 '스타트' 단계를 시작으로 데이터활

용 역량에 따른 성장, 으뜸 3단계 교육이 추진되며, 교육일정은 지난 6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17회, 60시간이다.

딸기·토마토·블루베리 등 원예공통 28종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기술, ▲스마트농업경영, ▲스마트농산물마케팅에 대해 교육하며, 스마트농업 활용에 필요한 스마트재배 기술, 디지털 장비 및 데이터 활용, 경영역량 향상 등 역량교육이 추진된다.

특히, 생산·경영·유통 전반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집중 강화해 스마트 경영 자립도 함양으로 지속적인 소득향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흥=원민기 기자

강진, 행안부 '모두에(愛) 마을기업' 공모사업 선정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 선정... 최대 1억 원 지원

강진군 마을기업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대표 최항심)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모두에(愛) 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에(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제품 브랜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은 자연군으로 제조하는 독창적 장류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2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농업

기술 습득을 지원해 마을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강진 백곰포도 생태문화협동조합은 공동 지역 마을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에 개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을 위한 '2023년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 장비·고도화 지원사업'에는 농업회사법인발효다(주), ㈜다산명가 등 농업회사법인 2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용용포장기 등 시설장비와 장류 제조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사업 등에 사업비 1400만 원이 지원된다.

강진원 군수는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나주, 대중교통 보조금·노선개편 시민설명회 가져

운수회사 보조금 관련 쟁점 사항 질의응답 등 각종 논란 해소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 노선·급행버스 도입 등 설명

나주시는 지난 26일 대중교통(운수회사)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 해소를 위한 대시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설명회를 통해 운수회사(나주교통) 보조금 과다 지원에 대한 전남도 주민감사청구, 시민사회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 행정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대중교통 관련 주요 쟁점들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답변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개편 추진 방향, 효과 등을 영상과 PPT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각계각층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발표(자)는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체계'(운송원가 용역사), '대중교통 보조금 개선사항 및 팩트체크'(나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노선 개편 사항'(노선 개편 용역사),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첫 발표는 지선·간선버스 지원방식, 표준운송원가 정의, 방식, 지원 항목, 산정·정산 등 대중교통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뤄졌다.

이어 나주시 교통행정과장이 나주교통 회계감사용역(2019~2020)에 따른 6억6800만원 회수 조치,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결과 전체 10건 조치 완료, 시민사회 고발(4건, 불송치 혐의 없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지침 마련', '표준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사업 별도 사업 관리 및 원가 제외', '입원 인건비 6명 중 3명 지원', '보조금 정산 관련 과업 강화', '간선 현금 수입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대중교통 보조금 등 팩트체크 Q&A를 통해 입원 및 승무사원 인건비 책정, 나주교통 현금 수입 관리,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 등 의문 사항을 20여 항목으로 정리해 답변했다.

나주시는 현 대중교통 현황 문제점으로 '대중교통 노선의 높은 중복도

화순,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를 6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구매 보조금은 대기 환경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및 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주용현 기자

물안개 속 낭만 '순천만 어싱길' 자연과 건강을 담은 힐링 코스



요즘 우리나라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의 새로운 힐링 코스로 '순천만 어싱길'이 떠오르고 있다.

순천만 어싱길은 순천만습지에서 별망만 장산마을까지 총 3코스(탐사르길, 세계유산길, 갯골길)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만 갯벌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가 쪽방길 위에는 마사토와 황토로 깔린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곳곳에 대나무와 잔디로 조성된 4.5km의 경로를 따라 걷는 동안 순천만 연안과 내륙의 탐사르습지를 경험할 수 있다.

어싱이란 땅과 신체가 직접 접촉하여 체내에 쌓인 정전기를 땅으로 배출하고 음이온 자유전자를 몸으로 흡수시켜 인체대사를 돕는 자유치유법으로 알려져 있다.

소설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배경 무대가 되었던 순천만의 이른 아침, 짙은 안개가 포구를 덮는 순간 맨발로 마주하는 순천만 어싱길은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힐링과 여유를 준다.

순천시는 '순천 어싱길 100일 맨발걷기 체험단', '순천만 어싱길을 걸어요' 등 다채로운 걷기행사와 맨발학교 강의도 진행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전남도지사 만나 현안사업 건의

광양영세공원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4건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이 지난 26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직접 만나 광양시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사업은 △광양영세공원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사업 △백운제 들레길 조성사업 △구룡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수어천 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용역비 지원 등 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특히 광양영세공원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립영세공



원(2000년 개장) 일원의 도로가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코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 건의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또 수어천 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용역은 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수어천 하류 지역에 해수 역류 방지 시설 설치로 비산면 청암 및 금치지역에 발생한 침수피해 등 염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하거나 광양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김영록 도지사 면담 후 전남도 장현범 기획조정실장을 추가로 만나 광양시 현안사업 예산 반영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조순익 기자